

후방 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재건술 후 가속 재활 Accelerated Rehabilitation after Combined Reconstruction of Posterior Cruciate Ligament and Posterolateral Corner

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

인 용 · 공재관 · 원호연

서 론

후방 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손상시 저자들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이 보고되어 왔으나,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재활 치료가 적용되어 왔다. 이는 조기 관절 굴곡 및 근력 운동 시 이식건이 이완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와 우려 때문이다. 그러나 후방 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재건술에는 많은 절개와 고정물 삽입이 필요하며, 수술 후 관절 강직, 근력 회복 지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. 저자들은 2004년 이후 만성 후방 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손상 환자에서 후방 십자 인대 및 후외측 지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 가속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다. 이 연구의 목적은 이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다.

재료 및 방법

2004년부터 2007년까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후외측 지대 재건술을 동반 시행하고 가속 재활을 시행하였던 15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수술은 아킬레스 동종건을 두 개의 이식물로 만들어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은 관절경 하 전외측 단일 다발 재건술을, 후외측 지대 재건술은 변형 Larson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. 남자가 13명 여자가 2명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3.2세(17~55세) 였다. 수술 후 조기 체중 부하와 관절 운동을 허용하는 가속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. 평균 추시 기간은 38개월(24~59개월) 이었다.

결 과

수술 전, 전 예에서 grade III의 후방전위 소견과 Dial 검사 상 견측과 비교하여 15도 이상의 경골 외회전 소견을 보였다. 최종 추시 시 6예에서 후방전위가 없었고 9예에서 grade I의 후방전위를 보였다. Dial 검사상 10예에서는 5도 미만, 5예에서는 10도 미만의 외회전 소견을 보였다. IKDC 평가 기준 상 수술 전 전 예에서 D의 소견을 보였으나 수술 후 A 4예, B 9예, C 2예였으며 D의 소견을 보인 예는 없었다. 슬관절 운동 범위 측정 상 굴곡 구축 소견을 보인 예는 없었고 평균 굴곡 각도는 138도(130~150도) 였다.

결 론

전외측 단일 다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 및 변형 Larson 방법을 이용한 후외측 지대 재건술 후 조기 체중 부하와 관절 범위 운동을 허용하는 가속 재활 치료로 슬관절의 완전한 안정성을 얻을 수는 없었으나, 다른 저자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슬관절의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었다.